

주일 예배순서

8:30am, 11:00am

헌금은 헌금함에 미리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Offering may be given in the boxes located in the lobby.

사회: 장영호 목사

*예배의 부름 ----- 장영호 목사
Call to Worship Rev. Issac Chang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Confession of Faith The Apostles' Creed All

경배와 찬양 ----- 찬양팀
Praise and Worship Newsong Praise Team

대표기도 ----- 사회자
Prayer (2nd service) Presider

성경봉독 ----- "벤전 3:18-22절" ----- 사회자
Scripture "1 Peter 3:18-22" Presider

말씀 ----- "옥에 있는 영들에게" ----- 김범기 목사
Sermon "preached to the spirits in prison" Rev. Paul Kim

봉헌송 -----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 다같이
Offering Song "Every Time I Pray" All

*축도 ----- 김범기 목사
Benediction Rev. Paul Kim

*찬양 ----- "모든 열방 주 볼때 까지" ----- 다같이
Ending Praise "Until all nations see the Lord" All

*표는 일어서서 * All Rise

- 수요 예배: 신명기 강해
- 토요 새벽 예배: 생명의 삶

• 수요예배: 오후 7:30

• 토요 새벽예배: 오전 6:30

- 헌금위원: 신유범 집사(5월)

• 예배 증보기도: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설교가 영어로 동시 통역되고 있습니다. 통역 수신기는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nglish interpretation service is available for 2nd service. Headsets are located at the front desk.

교회소식

1. 코로나19 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 기간: 5월 31일까지
- 참여 방식: 매일 시간을 정하여, 웹사이트에 기재된 기도제목과 가지고 기도합니다.
- 이번 한 주는 특별히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 교회 출입 및 방문 주의사항

- 워싱턴주의 외출금지령 규정과 Mountlake 시의 권고에 따라 추가적인 해제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교회 건물에는 교역자, 뉴스ong아카데미와 Child Care 스태프, 예배 촬영 관계자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 헌금 등은 설치된 교회 사무실 메일 박스에 넣어 주시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Virtual Bible School (온라인 VBS를 준비중입니다.)

- 교육부에서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VBS (Virtual Bible School)를 준비중입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상자료들을 제작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 가는 일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 Food Donation에 동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Donation 해 주신 모든 음식은 Edmonds School Distirct에 잘 전달 하였습니다.



5. 모든 헌금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 www.kpcs.us/offering
-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실경우 (CHECK ONLY. Payable to: KPCS)

파송 및 협력 선교사



안내문

시애틀 한인장로교회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WA주 외출 금지령을 지키며, 성도들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 예배와 모임을 아래와 같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 KM 주일예배 (오전 8:30/11시)
- KM 수요 저녁예배 (오후 7:30)
- KM 토요 새벽예배 (오전 6:30)
- 뉴스ong KIDS 주일예배 (오전 10:30)
- 뉴스ong 영어권/FLY 주일예배 (오전 11시)

시애틀 한인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로서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어
이땅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C2C 비전과 3S 존재 목적

하늘을 향해 열린 공동체로서의 Church to Church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로서의 Culture to Culture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로서의 Christian to Christian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기 위한 Salvation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Serving
예수님의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한 Sending

| 지난주 헌금총액 | (KM, EM, 마라나타)합계:\$6,383.00

- 십일조:\$4,552.00 감사:\$600.00 주정:\$650.00
- 선교:\$475.00 주일학교: \$16.00 중고등부:\$15.00
- 건축: \$25.00 기타:\$50.00



시애틀 한인장로교회: www.kpcs.us
뉴스ong아카데미: www.newsong-academy.org
New Song Church (영어권): www.newsongseattle.org



"코로나 이후 교회의 길"

WA주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교회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3 단계가 되어야 50명 이내 모임이 허용되게 되고, 아마도 6월 둘째 주 정도에나 모임이 허락될 것 같습니다. 하루 속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기에 교회를 닫는 과정보다 여는 과정이 더욱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습니다. 혹시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을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공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은 전염병이 도는 상황 가운데 차선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인데 혹시라도 이러한 온라인 예배를 모든 상황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조금해집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는 시간은 낭비나 퇴보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의 시간이고,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인내합니다. 한 자리에 육신적으로 모였다 해도 마음이 나뉘면 함께 예배드림이 아니요, 비록 흩어져 있다 해도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을 모을 때 오히려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두 달간 유례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며 세상은 비정상적 상황이 정상이 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말합니다. 사회학자들은 뉴노멀 시대는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풍경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이후 불어 닥칠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기 침체로 인해 자국의 생존을 목표로 하는 보호 무역주의로의 선회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문화와 기술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비대면(Un-tact: 언택트) 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IT 인터넷 기술은 공기와 같이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경험은 재택근무, 홈스쿨링, 경제 활동 등 인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 예측합니다. 세상은 새로 도래할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도록 문화와 사람을 분석하고 준비하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교회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교회는 두가지 방향으로 온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공동체성의 강화입니다. 비대면 시대의 파도가 밀려오기에 교회는 더욱 공동체성 확립에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성은 교회의 핵심 진리입니다. 참된 교회의 참된 표지는 말씀과 성례의 올바른 집행입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은 전할 수 있어도, 성례의 온전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만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란 비대면 문화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오히려 비대면 시대가 지속될수록 사람들은 참된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루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둘째로, 교회는 디지털 목회의 역할을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지난 두 달 간, 현장예배가 중단되며, 온라인예배 시스템 구축과 유튜브채널 개설 등 디지털 목회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직 불충분하지만 그에 따른 순기능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온라인시스템은 앞으로도 물리적 거리와 시간 제약으로 주중모임에 전혀 참석할 수 없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목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며 교회는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찾고 도입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붙잡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사회가 보여줄 미래는 아직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뉴노멀 시대는 교회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어느 시대나 그러했듯이 새로운 복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김범기 목사 -

400개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운동!

"인도의 야다브족 공동체"

기도제목

1. 우리는 야다브족 전체가 뒤돌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또 선교단체들이 이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게 하소서.
2. 선교단체들이 야다브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소서.

특히 엔지니어와 물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 도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FAM25
Francophone Africa Missions

말씀과 사랑의 열매를 나누어줍니다.

- 1. Gabon 17명
- 2. Congo 74명
- 3. Niger 14명
- 4. Rwanda 17명
- 5. Madagascar 17명
- 6. Mozambique 17명
- 7. Mali 17명
- 8. Morocco 17명
- 9. Republic of Mauritius 17명
- 10. Mauritania 17명
- 11. Benin 17명
- 12. Burkina Faso 17명
- 13. Burundi 17명
- 14. Senegal 17명
- 15. Republic of Seychelles 17명
- 16. Algeria 17명
- 17. Central African Republic 17명
- 18. Djibouti 17명
- 19. Chad 17명
- 20. Cameroon 17명
- 21. Congo 17명
- 22. Cote d'Ivoire 17명
- 23. Republic of Congo 17명
- 24. Togo 17명
- 25. Tunisia 17명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김범기
부목사: 김성보, 서윤숙, 장영호
협동 전도사: 김성희
영어목회: Ronald Bang
중.고등부 전도사: 이단비

유년부 전도사: 봉요한
뉴송 아카데미: 김남경
행정간사: 강미숙
지휘자: 박관빈
반주자: 박희주, 이현영, 정수민, 조인우, 홍희경

말씀과 사랑의 열매

베드로전서 3장 18-22절

"옥에 있는 영들에게"

· 역동적인 예배 · 하나되는 교제 · 변화되는 양육 · 응답받는 기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랑을 깨어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딤후 1:10